



“尹 즉각 탄핵하라” 광주의 외침 야당으로부터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4차 총궐기 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즉각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내란 아직 제압되지 않았다”

▶ 관련기사 2·3·4·9·11·13면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이 “여전히 제압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12·3 비상계엄’의 신속 철폐요구 결의안’을 채택한 지난 5일 이후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사 상황을 지켜본 결과 “국수본이 12·3 내란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특히 “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친위 쿠데타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내란은 제압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야당 위원들은 “국수본은 경찰청장, 서

야3당 행안위원,尹체포·핵심 증거 확보 촉구
국수본 수사 의지 있나...검찰에 주도권 뺏겨
김민석 “韓-韓-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

울경찰청장 등의 휴대전화내용을 임의제출 받았고 서울경찰청 무전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경찰 소속 피의자와 경찰 기록만 조사하면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에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심지어 내란죄 주동자인 김용현 전 장관의 셀프 출석까지 있는 후에야 김용현 공판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수본은 여전히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해 이상민 행안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의 주범들

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내란죄 수괴와 핵심 주동자들이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 범죄혐의자의 체포·구속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내란에 관련된 모든 혐의자 체포와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검찰에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신병 확보 ▲내란범죄 혐의자 전원의 통화 내역, 텔레그램 등 SNS 대화내역, 국무회의 기록, 군부대 출동기록 등 핵심증거

거의 신속한 확보 등을 촉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부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하고, 모든 관련 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 조작 등 부동공작에 의한 전시 계엄시도 여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김진수 기자

한동훈·한덕수 “정국 상황 조속 수습”

담화문 발표...구체적 로드맵 없이 원칙론적 내용만 언급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각각 별도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현재의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사람의 담화에는 정국 상황 조속 수습이라는 원칙론적인 언급

만 있었을 뿐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국정 수습 방안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

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가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계엄사태를)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개 정당 대표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어떻게 대통령에 대해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

게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대해 엄정하고 성역 없이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한 총리는 별도의 담화문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을 조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대표와 한 총리는 향후 주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하고 수시로 소통할 방침도 밝혔다. /김진수 기자

社 告

‘지역의 리더’ 여러분을 모십니다

광주매일신문 제12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원우 모집



각 분야 최고 강사진...열정·지식 추구 교류의 장
내년 3월 개강...인적 네트워크·문화행사도 다채

광주매일신문이 광주·전남지역 오픈이던 리더의 학습의 장인 제12기 창조클럽 아카데미에 각계 인사

를 모십니다. 제12기 창조클럽 아카데미는 기업 CEO와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임직원, 각 단체의 관리자 및 열정적인 지식 탐구를 지향하는 청년세대 등이 참여하는 학습과 교류의 장입니다.

경제학자 박수종 박사와 부동산 전문가 권대중 명지대 교수, 이승재 영화평론가,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 등 각 분야 최고의 강사진과 다양한 기획 특강을 통해 수강생들

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또 문화탐방, 산업시찰, 국내외 연수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합니다. 강좌가 끝난 이후에는 동창회 및 총동창회 활동을 통한 친목 도모는 물론, 광주매일신문에서 주최하는 각종 문화행사에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2기 과정에서 고품격 강의와 소중한 만남을 통해 재미와 만족을 극대화 하십시오.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 인원: 00명
- 교육 기간: 2025년 3월 25일(화) 개강-12월 종강(연 16회 강좌)
- 지원 자격: 기업 경영자 및 관리자, 지자체장 및 의원, 기관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계 전문가
- 강의 시간: 격주 화요일 오후 7-9시(오후 6시부터 식사)
- 강의 장소: 홀리데이인 광주호림
- 모집 기간: 2025년 2월 말까지
- 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07-2074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목적 광고 및 정책홍보

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

1일 100회 이상 노출 월 3,000회 이상 노출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시통팔달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츠 전달력 탁월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전광판 사진

원거리

근거리

위치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 (봉선동, 남구청)

남양정보기술(주) ☎ 광고문의 062) 231-1355